

쓰나미 재건복구지원 동향

인도양 해일정보 / 경감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전문가회의 결과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주최로 2005.3.3-8간 유네스코 본부에서 표제 회의가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우리나라에서는 주불한국대사관 최은옥서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광순 선임연구원 참석)

1. 핵심 내용

- 2004.12.26 인도양의 해일 대참사 이후, 지진과 해일의 영향에 관한 아세안지도자 특별회의 (2005.1.6, 자카르타), 재난감축을 위한 국제회의 (2005.1.18-22, 일본 고베), 해일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장관급 회의(2005.1. 28-29, 태국 푸켓) 등이 개최된 데 이어,
 - 표제회의는 유네스코 국제해양학위원회(IOC)가 중심이 되어 인도양지역 해일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개최된 첫 전문가 회의임
- 이 회의를 통해 인도양 국가들의 해일 정보/경감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도양 해일 정보/경감 시스템'의 설계·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일정을 마련하고자 함
- 다음과 같이 '인도양 해일 정보/경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은 금년 4월의 2차 전문가회의와 6월의 IOC 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
 - 시스템 구축 전단계에서는, 태평양 해일 정보·경감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도양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고,
 - 2006년까지 인도양 지역 전체를 측정계와 해저센서로 연결하는 지역정보 센터를 설립하는 등 해일정보시스템을 구축함

2. 회의 주요 내용

가. Matsuura 사무총장(개회사)

- 각 국 해일 정보센터로 활동할 national agency 지정 등을 통한 협력망 구축과 해일 위험 측정을 위한 연구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며,
- 인도양 해일 정보시스템은 세계 해일 정보시스템 구축의 첫단계이며,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WSSD, 2002)의 촉구로 향후 10년내 구축 예정인 세계 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과도 연계될 수 있는 강점이 있음을 강조함

나. 주요 발표내용 및 논의

- 인도양지역 해일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1)기술적 측면, 2)운영조직, 3)인식 제고 및 교육훈련의 3개 주제로 나누어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국가센터 등에서 그간의 축적된 기술을 소개하고 인도양 해일정보 시스템 구축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논의하였음
-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진 및 해수면 변화 등 위험요인 탐지, 위험정도의 평가 및 분석, 위험경고메시지 전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우리나라는 위험경고메시지 전파와 관련하여 최신 IT 기술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새롭게 개발한 T-DMB(Territorial-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방식을 소개하였음
- 운영조직 측면에서는 각 국의 시스템과 지역시스템 및 전세계시스템 연계의 중요성과 관련정보 상호교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세계시스템 또는 지역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결국은 각국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국의 자국민에 대한 전파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 등이 강조되었음

다. 주요 추진 방안(안) 권고

- IOC 총회에서 인도양 해일 정보 및 경감시스템을 위하여 인도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정부간 조정기구(ICG/IOTWS)를 구성 (타지역 국가는 옵저버로 참여)
 - IOC 사무국이 ICG/IOTWS의 사무국을 겸함
-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 정보발령을 통제할 책임이 있으며, 자국민에게 해일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교육·훈련함으로써 해일 정보발령시 행동요령을 전파함. 이를 위하여 국내 해일정보센터 설립하고 focal point를 지정
- 측정시스템, 위험관리, 정보(전파)시스템을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한 임시 워킹그룹을 구성하도

- IOC 사무국에 권고하고, 그 추진 경과를 4월 2차 회의시 보고하도록 함
- 임시조치로, 태평양해일정보센터(PTWC)와 일본기상청(JMA)에서 인도양지역 국가들에 해일 정보를 제공
 - 각 인도양지역 국가는 2005.4.1까지 이 정보를 받을 곳을 정하여 등록함
- 각국 해일재난 경감 프로그램은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이 중요

3. 향후 일정

- 제2차 전문가 회의(2005.4.14-16, 모리셔스 Port Louis)에서 추가 논의
- 2005.6.21-30 IOC 총회(유네스코 본부)에서 확정

4. 관찰 및 평가

- 표제회의는 인도양 지역 국가들에게 인도양 해일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전문가 회의로,
 - 국제해양학위원회(IOC)의 세계해일정보체제협의체(ITSU)를 중심으로 국제해일 정보센터(ITSC), 세계기상기구(WMO), 세계해양기구(IMO), 세계지진기구(GSN) 등 관련 국제기구와 각 국 기상청, 기상연구센터 등의 전문가들이 그간의 축적된 기술을 소개하고, 인도양시스템 구축에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을 논의하였음
- 금번 회의 소요비용은 일본에서 제공하였으며, 그간 해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인도양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 시스템구축 전의 임시단계에서는 태평양정보시스템에서 인도양 지역에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태평양해일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 금번 회의를 통해 인도양 해일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안)은 마련하였으나, 소요비용의 추산 및 조달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으며, IOC 사무국측은 이를 위한 각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서 위험경고 메시지 전파와 관련하여 활용될 수 있는 T-DMB(Territorial-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기술을 소개하였음. 국제해양학위원회(IOC)이사국이며, 세계해일정보체제협의체(ITSU) 회원국으로서, 향후의 인도양 해일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과정에도 IT 분야 신기술 전문가 뿐만아니라 해일 관련 분야 관계관 및 전문가의 지속적 참여가 요망됨

[자료 : 주프랑스 대사관]

스페인의 남아시아 해일관련 지원활동 설명회

스페인 외교부는 1,25(화) Salarich 아태국장 주재로 아태지역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 남아시아 해일 관련 주재국 정부의 지원활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스페인 정부의 지원현황

- 외교부, 산업통상관광부, 내무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등이 총 6810만 유로 상당의 지원을 실시 또는 추진중

2. 스페인 외교부의 지원활동

- 스페인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처(ACEI)는 현재까지 420만 유로 상당 지원
 - 5회에 걸친 구호품 수송(100만 유로 상당)
 - 피해지역에서 활동중인 스페인 NGO 들의 Emergency Plan 자금 지원(200만 유로) 약속
 - UN기관(UNHCR, UNICEF 등)을 통한 자금지원(100만 유로) 약속
 - 추가 구호품 수송(20만 유로) 예정

3. 스페인 외교장관의 피해지역 방문 및 추가지원

- Moratinos 외교장관은 지난주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를 방문, 현지 당국 책임자들과 만나 피해복구 및 지원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
 - 태국 방문시, 피해복구 재건 신속화, 관광객 신뢰 증대를 위해 세계관광기구 집행위를 해일 피해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 협의
- 상기 3개국 방문시 510만 유로의 추가지원 결정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중인 스페인 NGO들의 Emergency Plan 및 신규 복구 프로젝트 지원(3백만 유로)
 - 인도적 목적 국제기구 지원(2백만 유로)
 - 피해지역 수산, 공예, 관광, 소규모 금융지원 사업발굴 지원(10만 유로)

4. 기타 공공기관의 지원활동

가. 정부기관

- 산업통상관광부 5천만 유로, 내무부 2만 유로(검시관 4명 태국 파견), 국방부에서 780만 유로 규모지원 예정

나. 지방자치단체

- 각 주정부에서 200만 유로 지원

5. 향후 계획

- 금번 설명회에서 Salarich 아태국장은 금년 여름 이전 Zapatero 총리가 피해국가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월초반경 아태지역 대사들을 초청하여 피해국가지원에 대한 의견 교환, 스페인이 준비중인 대아시아정책(Action plan for Asia-Pacific)의 priority 재검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자료 : 주스페인 대사관]

인도네시아 재건복구사업관련 공여국 동향

1. 인도네시아 재건복구지원

재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World Bank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다자간신탁기금에 의한 지원방식에 대해 공여국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가 2005. 2. 17(목) 자카르타소재 World Bank 사무소에서 개최되었음. 이와 관련 공여국들의 동향은 아래와 같음

2. 공여국 동향

-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공여국들은 양자간사업을 위주로 지원하되 부분적으로 다자간사업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의사를 표명함. 특히 일본은 다자간신탁기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음
- 유럽국가 중 소액 공여국과 EU 등은 일단 다자간신탁기금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 표명함
- ADB, UNDP 등은 과거 경험상 다자간 재원조달에 의한 공동사업이 기금모금 등 여러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은 면도 있었음을 지적함
- 각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 공히 다자간신탁기금 방식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활발하게 발표함.
 - 재원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보장 필요(Accountability, Auditing)
 - 공여국별로 약속한 기금의 실제 지원이 지연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 가능
 - 사업추진 관련 시스템, 법제도, 관행 등이 서로 다르고 재건, 건설의 표준이 서로 다른 공여국 간의 조화, 조정이 필요하며 Sector별 조정, 양자간/다자간 조정도 필요함. 또한, 아프간 및 이라크 재건사업과는 달리 인니의 경우 자체 시스템을 상당히 존중할 필요
 - 다자간신탁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려면 BAPPENAS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사진 작성단계에 기금 공여국들의 적극 참여 필요

[자료 : 주인니 대사관]

스리랑카 재건복구사업 동향

1. 주요동향

가. 대통령 재건사업 착수시기 발표

- Kumaratunga 대통령은 오는 3.1(화)부터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대한 재건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외국 정부, 지방 및 국제기구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함.
- Kumaratunga 대통령은 주의회 및 지방의회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추진체제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피해지역의 인프라 재건에 17억불, 주택재건에 3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Mahinda Rajapakse 수상도 지진해일 피해로 약 10만채의 가옥을 새로 건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제는 긴급 구조단계를 지나 국가재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단계라고 말함

나.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건사업 참여동향

(1)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

- IDA는 스리랑카 정부와 공동으로 북·동부지역의 주택 재건사업에 4년에 걸쳐 75백만불을 지원하여 4만 6천채의 주택을 건설기로 함(동 사업의 총 소요액 77백만불중 2백만불만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
- 동 사업에는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토지소유권 회복, 건설노동 인력훈련, 토지분쟁 해결, 사회 및 환경영향 평가, 민간사업 기술검사, 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사업도 포함될 것임
-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팀이 북·동부지역 8개 구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북·동부 주의회내에 설치될 “북·동부 주택재건 사업단”이 각 사업팀을 관장하게 될 것임

(2) 이태리정부

- 이태리정부는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4개 구역내 19개 학교의 재건사업을 지원하기로 함(2.15 MOU 체결)
 - 지원 대상 학교 : Batticaloa 2개교, Trincomalee 8개교, Ampara 4개교, Galle 5개교
 - 사업내용 : 교실 이외에 컴퓨터학습센터, 실험실, 예체능실, 도서관, 운동장, 교직원실 등
 - 지원내용 : 전문가팀 파견, 자재 및 장비, 학습용 기자재 지원 등

-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문가팀에 의해 수립될 것이며 6개월 내에 계획수립이 완료될 예정
- 이태리정부는 상기 학교재건사업 이외에 수산분야, 북동부 및 남부지역 재건사업 지원을 위해서도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진해일 피해 국가에 대한 이태리정부의 총 지원 약속액 150백만 유로중 80~90%가 스리랑카에 지원될 것으로 알려짐

다. Galle시 종합확장계획 발표

- 남부지역 중심도시로서 지진해일 피해가 심한 Galle시의 종합확장계획이 2.14(월) 발표됨
 - ◆ 계획요지
 - 신시가지 경계의 확대
 - 100m 완충구역 규정의 엄격한 적용
 - Galle 역 및 버스정류장 이전
 - Mattegada 50에이커 부지에 Galle 스포츠 단지 신규 조성 및 인근 최초 의 민간 공항 조성
 - Gintota강 유역을 주변의 관련시설을 포괄하는 '학습회랑'으로 조성
 - 과거 화란 감옥건물을 세계 최초의 감옥호텔로 개장
 - 쇼핑센터를 Galle 도심에서 200m 내부로 이전 조성
 - Unawatuna를 남부주 관광센터로 전환
 - Galle항을 국제 요트 계류장으로 개선
 - ◆ 금번 확장계획은 Galle시를 제2의 상업 및 행정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개념에 기초를 두어 수립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 : 주스리랑카 대사관]